

정부, 미세먼지 재난대응 대책 추진

내년 3월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제5차 계절관리제 시행

정부가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재난 대응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제5차(2023~2024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겨울철·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총력 대응한다고 11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미세먼지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제도다. 2019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선 행안부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총괄점검TF 지자체반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 미세먼지 대책 및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재난

안전문자, 재난안내 자막방송을 발송해 국민 행동요령과 외출자제를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아울러 지자체와 함께 발굴한 미세먼지 재난대응 대책을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 본격 추진한다. 행안부는 미세먼지 알림 서비스 강화, 어린이집·경로당·다중이용시설 공기정화기 설치 지원, 가정용 저미세먼지 보일러 보급,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재활용 동네마당 확충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또 미세먼지 없는 생활공간 조성을 위해 도시 숲 조성, 그린빌딩 확산, 드론을 이용한 미세먼지 3차원 추적관리 등을 확대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에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행안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순창고추장불고기와 순창곰탕이 전라북도 향토음식으로 지정됐다.

순창고추장불고기 · 순창곰탕

전라북도 향토음식 지정

최근 음식관광산업이 관광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순창고추장불고기와 순창곰탕이 전라북도 향토음식으로 지정됐다. 11일 순창군에 따르면 전라북도 향토음식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음식을 발굴하여 지역의 음식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라북도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엄격한 심의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순창고추장 불고기는 그동안 전국 어디에서나 먹을 수 있었던 고추장불고기에서 탈피하여 지역에서 나는 미나리 등 각종 채소와 청국장을 곁들인 것으로 올해 유명 셰프인 이원일 씨와 함께 개발하여 관광객들에게 선보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고추장불고기는 관내 4

개 식당에서 올해 8월부터 판매를 시작한 후 20,000여명이 방문하여 매출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고추장을 이용한 소스로 매콤함과 달콤함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면서 청국장을 곁들여 지역의 특색을 잘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순창곰탕의 경우 오랫동안 순창에서 먹어왔던 지역음식으로, 지역 특유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 니주곰탕과는 달리 순창곰탕은 국물에 들깨와 고추를 갈아 넣어 고소하고, 빨간색의 국물이 특징이다. 심사위원들 사이에서도 순창에 이런 음식이 오랫동안 있었다는 것이 놀라다며 잘 홍보하여 순창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음식산업 발전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순창=이양원 기자

도, '현혈문화 확산 유공' 포상

전북도는 11일 도청에서 현혈문화 확산 및 생명나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현혈문화 확산 유공'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포상은 지난 10월 4일 전북도민 현혈의 날을 선포하고 10월 25일까지 22일간 현혈캠페인을 추진한 결과 현혈 증진과 혈액 수급, 국민 건강 복지 향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유공자인 단체나 개인에게 수여한 것이며, 사랑의 현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창을 수여받은 기관은 원광대학교, 한국도로공사전북본부, 강호항공고등학교,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이며 개인은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김영일 본부장이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저출산, 고령화로 현혈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현혈 문화를 확산하고 생명나눔 운동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



전북도는 11일 도청에서 현혈문화 확산 및 생명나눔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현혈문화 확산 유공'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하기 위해 추진한 이번 캠페인에 동참 해주신 모든 분들과 유공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도내 건전한 현혈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랑의 현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군산, 지역특화수산물 명품화 사업추진

올해 소비촉진 위한 직거래장터 참가·미디어 홍보 주력

군산시는 오는 2024년에도 지역 수산 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판로 개척을 위해 지역특화수산물 명품화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올해 홍어와 대구 및 꽃새우 등 지역특화수산물 개발을 위해 시장조사, 영양분석 및 마케팅 용역을 시행하여 전문 데이터를 확보했다. 이를 밑바탕으로 내년에는 관내·외 주요 외식업체 연계를 통한 메뉴 도입 및 온/오프라인 뉴스, 블로그 등을 통한 마케팅 콘텐츠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산수산물종합센터 신축이전 개장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할인행사 및 '군산홍어' 전진배치를 진행해 수산물관

시장으로 주목 있으며, 올해는 지역수산물 홍보 및 소비촉진을 위해 국회, 전북도청, 김천자매도시 및 군산시 직거래장터를 꾸준히 참가하며 위촉된 소비심리조사 회박하기 위해 노력했다. 미디어홍보 분야로는 군산 지역사랑 캠페인-수산물분야를 활용해 국내 최대 홍어 생산지인 군산을 알리며 안전한 수산물에 대하여 홍보를 추진했다. 또, 군산수산물센터와 협업체 지역특화수산물(홍어, 바다, 딱갈치) 홍보관 매형성을 제작, 관내 및 관외(대전, 경남)에 송출하여 홍보실적을 높였다. 또한, 우수 수산물 브랜딩 추진으로 군산 참홍어 타이포그래피 영상을 제

작해 온라인(유튜브, 네이버) 광고 노출로 송출 9일만에 조회수 3만건이 넘는 등 홍보에 주력했다. 2024년 주된 사업으로는 조업어선(생산지)에서 생물에 이력제임을 부착해 소비자에게 원산지 정보를 제공, 유통 단계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산물 스마트 이력제 도입 사업, 수산물 소비 추세 변화에 따라 주요 수산특산물의 홍보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한 전문적인 포장재 지원 사업, 수산분야 기후변화 대응 및 수산물 위생 안전 기반 물류체계 구축을 통해 저온 유지체계가 가능한 저온·친환경 위판장 현대화 사업으로 저온 유지체계가 가능한 위판장으로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특화수산물 명품화를 위해 본격화 가동 예정이다. /군산=김관용 기자

시는 참홍어 참홍어회력량(TAC)제도 도입에 따라 전북 배정 어획량이 전국 3,668톤 중 1,351톤(36.8%)을 배정받은 만큼 관내 우수 수산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및 지원을 추진 예정이며, 내년도 직거래장터를 참홍어 생산자협회(서해군해연승협회)와 협업하여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홍어를 홍보와 시식 행사를 마련할 예정이다. 참홍어 생산자협회(13명)의 적극적인 참여의지가 높은 만큼 군산시 수산물 소비 활성화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역특화수산물 연계한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등을 내년에도 지속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김관용 군산시장은 "지역특화 수산물 명품화 사업을 통해 관내 수산물의 특색있는 홍보 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여 대내외 인지도 향상의 발판 마련의 기회가 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관용 기자

도내 외국인 대상 지게차운전기능사 학과교육 운영

전북국제협력진흥원(원장 김대식)은 도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2023년 외국인 기술교육 지원사업'을 실시해 외국인들의 기회를 확대했다. 외국인 기술교육 지원사업 프로그램은 작년 원주군 등 3개 지역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 상반기 익산시 등 5개, 하반기 전주시 등 3개 지역에서 진행됐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지게차 운전기능사 학과교육은 필기시험에 나오는 한국어 용어 위주의 맞춤형 교육으로, 외국인 눈높이에 맞추어 5주(20시간) 집중교육을 3개지역(전주, 완주, 익산)에서, 총 101명이 신청하여 진행했다. 기술자격증 취득시 현재 대다수의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비자인, 비전문

취업비자(E-9)에서 숙련기능비자(E-7-4)으로 변경하기 위한 점수를 확보할 수 있다. 외국인이 숙련기능비자로 전환시 도내 기업에 장기근속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전북의 산업인력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이번 기술교육은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들을 위해 통역을 지원하였으며, 시험접수 방법 및 시험 일정, 숙련기능인력(E-7-4) 전라북도 추천제 정보도 함께 제공하여 외국인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김대식 원장은 "최근 전라북도 산업인력 인구수 감소 현상을 감안하여, 외국인들의 장기거주를 위한 숙련기능비자(E-7), 지역특화형비자(E-2-R) 전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1~2월(방학특강) 과정

스피치 · 웃음코칭 · 긴장해소

○ 현대인의 필수과목에 참여하여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① 매주 1회 야간수업 ② 도민 누구나 가능
③ 특강 등록금 15만원(2개월분) ④ 전문강사지도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

상담전화 : 231-6669, 010-7304-5665

장애인 복지 증진대회 및 송년문화공연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라북도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에서 합동으로 장애인복지, 인권, 문화예술참여확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제24회 행사를 엽니다. 많은 성원과 참여 바랍니다.

① 일시 : 2023년 12월 22일(금) 오후2시
② 장소 : 전주교육대학교 황학당
③ 주요행사 : 개회식, 물품전달식, 송년문화공연, 행운권추첨 등

문의 : 286-6678, 팩스 : 287-6676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 063-288-9700 www.jjmaeil.com